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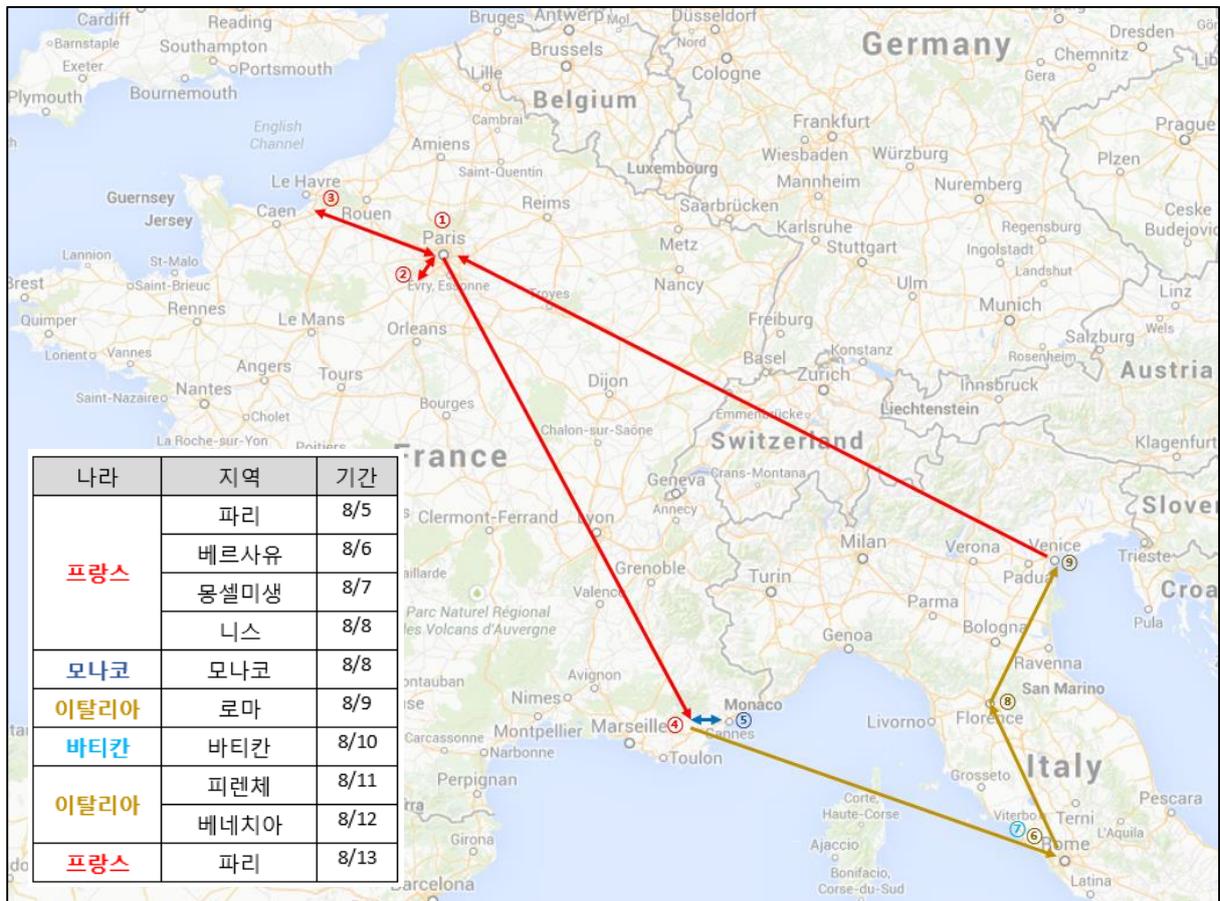
유럽여행을 시작하며

대학 초년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으로 무작정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그로부터 12년 와이프와의 새로운 여행도 좋았지만 항상 마음한켠으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던 이탈리아를 같이 방문하고 싶었다.

그 동안 직장을 핑계로 유럽은 왠지 멀고 낯설게 느껴왔는데, 배낭여행의 기회로 준비하다보니 12년 전 이탈리아가 바로 어제처럼 아련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3개국의 루트를 정하기 시작하자 가장 흔한 조합인 **프랑스 / 스위스 / 이탈리아** 부터 그동안 눈독들였던 지중해의 **터키 / 산토리니 / 이탈리아** 조합까지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프랑스 / 모나코 / 이탈리아 / 바티칸**으로 본의 아니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1위 2위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고 10박 12일의 짧은 여행기간이었지만 난생 처음 가보는 프랑스와 추억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병행으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체 여행루트 및 일정



여행루트의 비하인드 이야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다보니, 전체 일정에 쉴 수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전략적으로 여행 4 일차에 프랑스에서도 휴양지로 알려진 니스(Nice) 일정을 넣게 되었다. 본래는 니스(Nice) 해변에서의 일광욕이 목표였으나 어머님께서 전체 일정을 보시더니 니스(Nice)에서 꼭 모나코(Monaco)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시어 걱정반 우려반으로 추가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프랑스의 뻘한 이야기

여행초반에 의욕이 넘쳤던 프랑스는 그 규모에 크게 놀랐다. 땅 자체도 넓고 크지만 이탈리아의 개선문을 생각하고 마주하게된 파리의 개선문. 에펠탑 열쇠고리만 보다 보게 된 실제 에펠탑. 3 대 박물관인 루브르 전경, 끝없이 펼쳐진 베르사유 궁과 정원, 화산섬 전체를 수도원으로 만든 몽셀미생까지 건물들이 모두 크고 웅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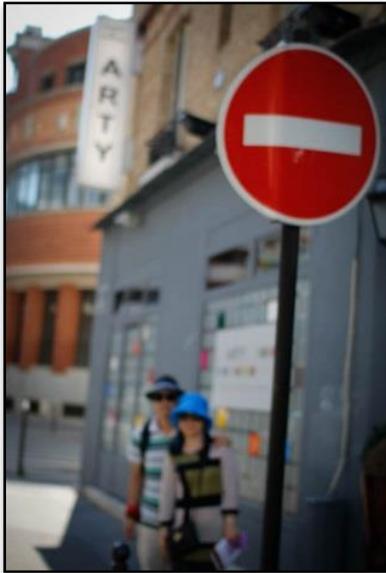
그랬기에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 웅장함이 잘 느껴지지 않아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서 왜 TV 나 사진으로만 보지말고 직접 가보라고하는 것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프랑스의 번외 이야기

프랑스는 Graffiti 천국이였다. 도로가에 어김없이 글씨나 그림을 낙서 해놓았는데, 처음에는 지저분해 보이기만 했었지만 계속 접하다보니 하나의 활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탈리아에 Graffiti 와 비교해보면 수준차이가 느껴질 만큼 완성도가 있었고 이래서 파리가 예술의 도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거기에 쏟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공부에 쏟으라고 꾸지람을 100 번도 더 들었을 테니 말이다.

도로에 개똥이라니, 한국에서는 애견가라면 꼭 배변봉투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치우는 것이 당연하고 예의라고 생각하며 개똥녀 사건처럼 이슈화되어 크게 문제시 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애견천국인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더 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버젓히 길거리에 덩그라니 놓여있는 개똥을 보고 있으려니, 이게 사람 것인지 개 것인지 혼돈이 되는 것도 있을 정도니 알다가도 모르겠다.

파리 (Paris)



[파리의 숙소 앞에서]

의도적으로 흐리게 찍은 것은 아는데, 마치 여행의 첫 시작에서 여행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 지우지 않고 여행기에도 올리게 된 사진이다.

첫여행의 숙소는 배낭여행에서 빠지면 섭한 호스텔이었다. 부모님과 함께가는 여행에서 호스텔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호스텔은 돈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안식처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4인실을 선택했다.

파리도심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 입구]



[베르사유 정원]

노르망디 지역

파리에서 북쪽으로 끝으로 올라가야 있는 노르망디 지역은 불편한 교통편과 교통거리로 파리지내만해도 다양한 볼거리가 충분하여 과감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방문하게 된다면,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건물들을 보면서 왜!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술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감탄할 것이라 자신한다.

에트르타 (Etretat)



[에트르타 교회]



[아기 코끼리 바위]

웅플뢰르 (Hunfleur)



[목조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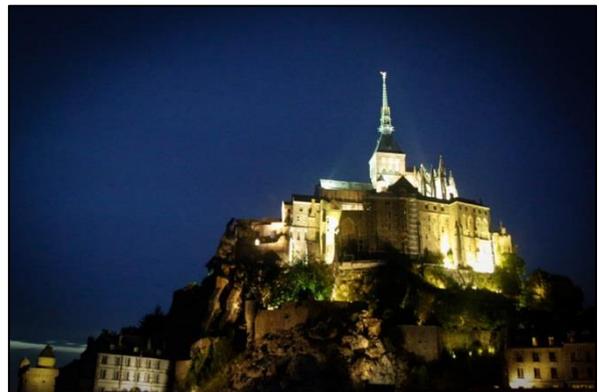


[골목길에서]

몽쉴미셸 (Mont St-Michel)



[몽쉴미셸의 해지기 전]



[몽쉴미셸의 해진 후]

니스 (Nice)



니스 기차역에서 10 분내외로 걸으면 바로 해안가가 나오는 휴양도시이다. 처음에는 샤모니 몽블랑을 목적지로 하려했으나, 로마로 넘어가는 교통편을 고려하다보니 도시에 공항이 있기도 하고 피로에 지친 타이밍에 프랑스에서의 사치스러운 휴식도 좋을 것 같아 니스로 결정하게되었다.

서두에 밝혔지만, 휴양을 목표로했으나 곧 모나코 열차에 몸을 실어야 했던 비운(?)의 목적지이기도 했다.

바닷가에서 첨병대느라, 카메라에 신경쓰지 않고 싶어서 찍은 사진이 별로 없다. 특히, 비치에서는 괜한 오해를 받거나, 찍어놓고 후회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일절 사진을 찍지 않았으니 상상에 맞기겠다.

모나코 (Monaco)



세계에서 2 번째로 작은 나라이자, 휴양지 및 신혼여행지로 유명하다. 사실 니스에서 30 분 거리의 나라로 시골 도시같은 느낌이였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구별이 쉽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더 묻어 난다.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 모나코 국기가 보이고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누가 봐도 모나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한컷 찍어 올린다.

로마 (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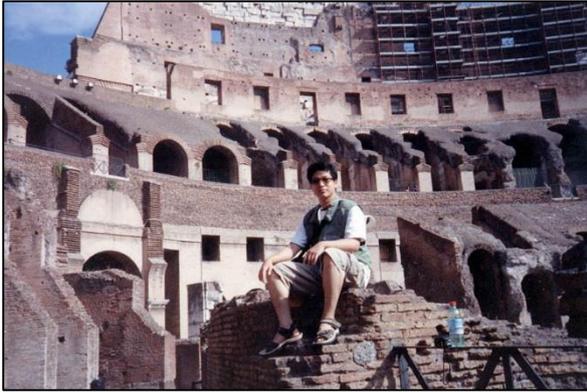
로마는 널부러진(?) 돌 조차도 유적의 잔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걷는 곳마다 유적이 산재해 있어 대중교통의 도움없이 걸어서 구경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아쉽게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트레비분수 / 스페인광장 / 진실의 입** 중에서 **트레비분수와 스페인광장**은 전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구경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진실의 입**을 제일 먼저 가장 크게 올려본다.



최대한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같이 올려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한 것 같지 않은 이탈리아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옛날 사진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완벽하게 같은 위치에서 찍지는 못했다. 그마저도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는 사진위주로 배열하였다.



[12 년 전의 콜로세오]



[현재의 콜로세오]



[12 년 전의 판테온]



[현재의 판테온]



[12 년전 천사의 성 다리]



[현재의 천사의 성 다리]



[12 년전 나보나 광장]



[현재의 나보나 광장]

집에와서 옛날 사진과 비교하면서, 망각으로 인해 어디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특히, 로마에서는 비슷한 공간이 많아 잘 구분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여행기를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니, 어디였는지 떠오르면서 그곳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떠올랐다. 깊은 곳에 숨겨둔 기억조차 계기를 통해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추억으로 사는 동물이라는 것을 통감한다.

바티칸



바티칸이 하나의 나라라고 지칭한다면, 나라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본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하다. 바티칸이란 나라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 마침 바티칸을 들렸을 때에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다.

교황이 없는 바티칸과 내가 없는 한국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도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을 듯하다.

피렌체 (Firenze)



멀리 피렌체 두오모가 보이는 이곳은, 다비드 공원이다. 우측으로도 배경이 멋지고 좋은데 이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24 년전 방문했을 때, 찍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같은 느낌으로 찍힌 사진을 올린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직접보고 느낀 감동까지 담아내거나, 망막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앞으로 사진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12 년전 피렌체 두오모]



[현재의 피렌체 두오모]



다비드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기에 서있는 다비드상은 모조품이라고 한다. 12년전 사진에도 다비드상이 주인공이 아닌 말탄경찰을 주인공으로 찍었던 것을 보면, 이제 슬슬 저런 조각상에 대한 로망(?)이 사라진 이후였을 것이다.

처음 로마에서는 조각품 하나하나가 감탄스러웠는데, 너무 흔하게 보이게 되니 오히려 말을 타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이 더 신기해 보였을까? 24/32 컷밖에 찍을 수 없는 필름에 담아낸 것을 보면 그땐 그때만의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베네치아 (Venezia)



[12 년전 통곡의 다리]



[현재의 통곡의 다리]



나에게 **베네치아**라고 하면 꼭 방문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도시이다. 그리고 2 번째 조우,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니 그 감격은 남달랐다. 2 번째 방문하였어도 다른 도시들이 아무리 모두 이국적이고 기억에 깊이 남을 만하다지만, 차도가 바닷길이고 자가용/택시가 보트인 **베네치아**는 이국적인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전혀다른 충격이었다.

로마에 비해 관광지가 많은 것도, 박물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가도 다른 이탈리아 전역에 비해 비싸지만 **베네치아**의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장 올려본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마치 건물이 물에 바로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실제 대문에서 바로 보트로 연결되는 집도 있을 만큼 골목, 골목은 더 정감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큰 바닷물 너머로 보이는 집들의 풍경이 시원해 보일 것 같아서 골라보았다.



유럽여행을 마치며

항상 여행은 일상으로의 탈출이고 신선한 충격이 되어왔다. 그리고 여행은 쳇바퀴돌듯 사는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서두에서 밝혔듯 유럽여행은 아시아권에서는 항상 멀게만 느껴지는 선망의 대상인데 이렇게 회사 지원을 통해 계기가 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용기내지 못한 많은 두산인들이 있다면 과감히 해외 배낭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